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P.I.R.A.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독서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P.I.R.A.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독서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73페이지 35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5번 문장, 3문단 1번~3번 문장, <보기>	1문단 3번~5번 문장, 3문단~4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귀납 논증이지.	포퍼는 연역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설	㉠은 '귀납 논증'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분석하면서 미리 생각했듯이, (가)~(나)의 논증은 '귀납 논증'이고 (ㄱ)~(ㄷ)의 논증은 '연역 논증'이었죠? 그렇다면 ㉠은 (가)~(나)의 논증을 통해 결론을 증명하겠네요.	‘포퍼’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포퍼’는 ‘연역 논증’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선지에서는 ㉠ 자체가 아니라 ㉠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포퍼’에 따르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ㄱ)~(ㄷ)과 같은 ‘연역 논증’을 통해 과학적 지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5번 문장, 3문단 1번~3번 문장, <보기>	1문단 3번~5번 문장, 3문단~4문단 전체, <보기>

P.I.R.A.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문학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P.I.R.A.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문학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5페이지 9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이번에도 (가)부터 확인하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색채어를 확인하기 어렵죠? 물론 (나)에서는 '옥 곱튼 얼굴'의 '옥'과 같은 색채어를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부터 확인하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색채어를 확인하기 어렵죠? (나)에서도 '옥 곱튼 얼굴'의 '옥'과 같은 '색채 이미지'를 찾을 수는 있지만, 색채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173페이지 100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2문단 (2쇄부터 반영)	한편 ㉠의 경우, '가슴에 비가 뿌'러지는 것과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모두 촉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시각으로 전이하여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한편 ㉠의 경우, 정말로 화자의 가슴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비를 보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시각) 이를 보면서 가슴에 비가 뿌려지는 것처럼 느끼고(촉각), 또 그로부터 옷은 젖지 않는 '서늘함'을 느끼고(촉각) 있으니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켰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240페이지 139번 문제 3번 선지 (2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도치가 어딤어.</td> </tr> <tr> <td>해설</td> <td>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한국어의 대표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처럼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치가 어딤어.	해설	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한국어의 대표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처럼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A]에 도치가 어딤어.</td> </tr> <tr> <td>해설</td> <td>[A]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틀린 선지네요. 한편 [B]에서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등의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는 있죠?</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 도치가 어딤어.	해설	[A]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틀린 선지네요. 한편 [B]에서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등의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는 있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치가 어딤어.									
해설	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한국어의 대표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처럼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 도치가 어딤어.									
해설	[A]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틀린 선지네요. 한편 [B]에서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등의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는 있죠?									
285페이지 16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먼동'이 뜬다는 것은 새벽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먼동'이 뜬다는 것은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